



김성연(건국대)

1. 들어가는 말

페르시아(대략 기원전 550-330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은 자신의 광활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고도로 발달된 교통체계를 활용했을 뿐 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 사이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 왔다. 새 왕비를 구하는 왕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보다 더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처럼 현자들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지를 살피는 것은 그 왕의 통치 스타일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¹⁾

1) 조언 장면에 대한 연구는 페르시아 왕들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페르시아 왕의 리더십

본 논문에서는 크세르크세스(Xerxes, 기원전 486-465년) 왕과 관련된 조언 장면(advice scene)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조언자(또는 신하)들의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다른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 하나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저술한 『역사』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기원전 490년부터 478년까지 지속되었던 페르시아의 침략을 그리스 연합군이 극복해 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²⁾ 따라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신하들과 논의했던 방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그의 책이 담겨 있다. 다른 하나의 자료는 구약성서 에스더서이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어로(Ahasuerus)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Xerxes)이다.³⁾ 무엇보다도 구약성서 에스더서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크세르크세스가 각각 어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다룬 역사서이다. 반면에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크세르크세스를 묘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저자들이 동일인물(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현자들이 조언하고 충고하는 장면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두 자료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다. 두 자료에 등장하는 사건들과 인물들

스타일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의 학위논문을 참조하십시오. S. Fitzsimons, "The Leadership Styles of the Persian Kings in Herodotus' History"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17).

- 2) A. Kuhrt, *The Ancient Near East: c. 3000-330 BC*, vol.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647.
- 3) 일부 학자들은 한 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어로(Ahasuerus, 기원전 486-465년)' 왕을 페르시아의 '아탁사스다(Artaxerxes, 기원전 465-423년)'로 간주했다. 이것은 칠십인역-에스더서(LXX-Esther) 번역자가 아하수어를 아탁사스다로 옮겼기 때문이다. 후대의 요세푸스(Josephus)와 페쉬타(Peshitta)도 이 해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칠십인역-에스더서 번역자가 두 이름의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아하수어를 크세르크세스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을 비교하는 일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두 자료에 등장하는 현자들은 동일인물들이 아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헤로도토스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자료에서 기술하고 있는 장면들도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다.⁴⁾ 대신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언자들(advisors/counselors)’의 역할과 그에 대한 크세르크세스의 태도와 반응에 관심을 갖는다. 에스더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하수어로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다. 그리고 헤로도토스도 현자들이 크세르크세스 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언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많은 경우에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기 보다는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에스더서의 아하수어로 왕과 헤로도토스의 크세르크세스가 동일인이라면 두 자료에서 상이하게 묘사된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⁵⁾

2.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에스더서 사이의 시대적·문학적 공유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에스더서는 기술하고 있는 대상(페르시아 왕조)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

4)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대보다 후대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하려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5) 에스더서가 전하는 이야기의 왕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 때는 ‘아하수어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에 대해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두 자료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시 말해, ‘아하수어로’라는 이름이 사용되면 독자들은 쉽게 에스더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등장하면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료에 있는 조언 장면들(advice scene)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에스더서를 주석한 베를린(Adele Berlin)은 이를 위해 헤로도토스(대략 기원전 480-420년)의 「역사」를 비롯해서 크세노폰(Xenophon, 대략 기원전 428-354년), 크테시아스(Ctesias, 기원전 5세기 후반), 아에스킬로스(Aeschylus, 기원전 525-456년),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대략 기원전 450-385)의 문학 작품들을 대거 섭렵하고 있다.⁶⁾ 베를린은 특별히 에스더서를 당시의 헬라 문학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s)과 문학적 모티프(literary motifs)에 관심을 갖는다. 베를린이 지적하듯이⁷⁾ 에스더서를 당시의 그리스 역사기술(historiography)과 문학(literature)과 비교하는 작업은 모밀리아노(A. Momigliano)에 의해 시작되었다.⁸⁾

의심의 여지없이 유딧서와 에스더서의 많은 특성들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국제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헤로도토스의 첫 작품들 안과, 테시오스의 작품들 속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크세노폰의 키로파에디아(Cyropaedia) 안에 있는 몇몇 이야기들에도 해당된다.⁹⁾

모밀리아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베를린도 에스더서 저자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은 당시의 고대근동 지역에 편만했던 페르시아 궁전 생활에 대한 전형(stereotypes)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6) A. Berlin, *Esther*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xxx-xxxi.

7) 윗글, xxviii-xxix.

8) A. Momigliano, "Eastern Elements in Post-Exilic Jewish, and Greek, Historiography",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7), 25-35. 그리스 역사기술(Greek Historiography) 일반에 대한 초기 저작을 위해서는 각주 6번을 참조하십시오.

9) 윗글, 27.

10) A. Berlin, 윗글, xxviii.

아테네인들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 궁전에 대해 이미지와 에스더서에 묘사된 궁전의 모습이 매우 흡사한 점을 들고 있다.

그들은 … 아주 큰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데 …… 그 곳의 조직적, 식물군, 동물군의 특성은 추위와 더위, 산지, 감귤류 과일, 낙타, 말, 공작, 수탉, (아마도) 사냥용 사자, (paradeisoi), 도로 시스템, 대사와 공식 사자들 … 그들은 부유하고 … 페르시아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거만하고, 가까이하기 힘들며 … 그들은 화려한 삶(예를 들면, 의상, 옷감, 음식과 음료, 식기, 운반 도구, 화려한 수염, 가구)을 즐기고: 하지만 왕비들은 성적으로 고결하고 때로는 정력적으로 호전적이다 … 그들의 정책은 전체 군주적 이데올로기로 결정되며 공손한 행동과 서열식 지배구조는 평등을 거부하며 … 힘(권력)이 존중받아서 법의 원칙이 저해된다—예외적으로 “선한”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내시들을 만나게 되며; 처벌의 방식으로 꼬챙이형과 십자가형이 사용된다.¹¹⁾

베를린의 접근이 문학적이려면 야마우찌(E. M. Yamauchi)는 역사적 접근을 시도했다.¹²⁾ 그는 페르시아 역사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서를 조명하고 있다.¹³⁾ 따라서 에스더서를 크세르크세스 치세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야마우찌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 문학과 성서는 다양한 ‘문학적 모티브(literary motifs)’를 가직하고 있다는 베를린의 견해는 조인 장면에도 적용된다. Immerwahr(임머바르)는 ‘지

11) C. Tuplin, *Achaemenid Studies* (Stuttgart: Franz Steiner, 1996), 164.

12) Edwin M. Yamauchi, *Persia and the Bible*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90).

13) 한편, 반시터스(van Seters)는 일찍이 오경과 역사서의 장르 또는 형식이 그리스의 역사기록(Historiography)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J.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특별히 8-54쪽을 참조하십시오. 한 편, 니콜슨(Nicholson)은 오경과 역사서를 ‘역사(history)’라기보다는 ‘이야기(story)’로 보고 있다. E. W. Nicholson, “Story and History in the Old Testament”, S. Balentine and J. Barton (eds.), *Language, Theology and the Bible: Essays in Honour of James Barr* (Oxford: Clarendon, 1990), 135-150.

헤로운 조언자(wise counsellor)가 페르시아 왕 앞에서 조언을 하는 장면들이 일종의 ‘전형-장면(type-scene)’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왕이 조언을 받아들이면 승리를 하고, 조언이 거부될 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다.¹⁴⁾ ‘전형-장면(type-scene)’ 연구는 본래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Odyssey)와 같은 호머(Homer)의 작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¹⁵⁾ 이들에 따르면 배경이 유사한 장면에서 비슷한 패턴을 이루는 ‘전형-장면(type-scene)’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알터(R. Alter)는 ‘전형-장면(type-scene)’을 자신의 성서 내러티브(Biblical Narrative) 분석의 틀로 활용한 대표적인 학자이다.¹⁶⁾ 알터가 소개한 이후 전형-장면은 성서학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¹⁷⁾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구약성서 에스더서에는 많은 조언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들이 두 자료 내에서 특정 규칙과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다른 표현으로 ‘전형(stereotype)’을 이루는 지는 앞으로 진행 될 연구를 통해 논의가 되어져야 하겠지만,¹⁸⁾ 빈번히 등장하는 ‘문학적 모티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¹⁹⁾

14) H. R. Immerwahr, *Form and Thought in Herodotus* (Cleveland: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66), 72-75.

15) 대표적인 학자로는 Walter Arend, *Die typischen szenen bei Homer* (Berlin: Wiedman, 1933).

16)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47-62.

17) 전형-장면이 성서학계 도입된 과정과 알터(Alter) 이후의 연구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십시오. Koowon Kim, *Incubation as a Type-Scene in 'Aqhatu, Kirta, and Hannah Stories: A Form-Critical and Narratological Study of KTU 1.14 I-1.15 III, 1.17 I-II, and 1 Samuel 1:1-2:11* (Leiden: Brill, 2011), 19-23.

18)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에스더서를 전형-장면(type-scene)으로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두 자료를 전형장면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9) 왕궁에서 지혜로운 신하(wise courtier)의 말이나 행동은 일찍이 민담 연구가들이나 성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Susan Niditch and Robert Doran, "The Success Story of the Wise Courtier: A Formal Approach", *JBL* 96/2 (1977), 179-193; W. L. Humphreys,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1-223.

3.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조언자들

크세르크세스 주변에는 많은 조언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대에 인정받았던 지혜자들로 보인다.²⁰⁾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여러 신하들의 다양한 조언들은 크세르크세스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어떤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제안들이 거부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항목이 된다.

1) 헤로도토스의 묘사

크세르크세스의 가장 대표적인 조언자는 아르타바노스(Artabanos)다. 아르타바노스는 본래 크세르크세스의 숙부이다. 부왕 다리우스의 형제로서 왕실의 중대사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지혜는 크세르크세스가 1.3 km에 이르는 부교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시 한 번 드러난다.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의 육군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게 해서 아테네를 침공하고자 했다. 대군을 통해 승리를 이끌고자 계획하고 있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대군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위험성을 경고한다.

Herodotus VII. 49. 아르타바노스가 대답했다. “전하, … 전하께서 더 많은 군사들을 모병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두 적은 더 무서워질 것이옵니다. 두 적이란 바로 육지와 바다입니다. 생각건대 바다에는 폭풍이 불 때 전하의 이 함대를 받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만큼 큰 항구가 어디에도 없사옵니다. 그런 항구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지나가시게 될 해안을 따라 여러 곳에 있어야 하옵니다. 하온데 그런 항구들이 없는 만큼, 전하께서는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상황을

20)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묘사된 ‘지혜로운 조언자(wise adviser)’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ichmond Lattimore, “The Wise Adviser in Herodotus”, *Classical Philology* 34/1 (1939), 24-35.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적 가운데 하나고, 다른 적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하의 적이옵니다. 적이 저항하지 않을 경우 전하께서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실수록 육지는 그만큼 더 위험해지옵니다. 인간은 성공에 물리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이 저항하지 않을 경우 전하께서 더 많은 땅을 얻으시게 되고 땅을 얻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수록 기아에 시달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이옵니다. 닥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숙고하기에 계획을 세울 때는 소심하지만 계획을 수행할 때는 용감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사람일 것이옵니다.”²¹⁾

아르타바노스의 지적에 크세르크세스는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펼친다.

Herodotus VII, 50. 크세르크세스가 대답했다. “아르타바노스여, 그대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소심하지 마시오, 매사를 너무 숙고하지 마시오. 매사를 너무 숙고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오 …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보시오. 선대의 왕들께서 그대처럼 생각했거나 그대 같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그대는 페르시아가 이토록 발전한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오. 그분들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신 까닭에 페르시아를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신 것이오. 큰 일은 큰 위험 없이는 이를 수 없는 법이오 … 지금 우리는 군량을 넉넉히 운반하고 있고, 어딜 가든 그곳 주민들에게서 식량을 얻을 것이오. 우리는 유목민들이 아니라 농경민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으니 말이오.”

물론 크세르크세스도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다만, 그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전쟁을 감행해야 한다고 판단했

21) 본 연구에서 헤로도토스 「역사」에 대한 번역은 천병희 역을 따랐다. 헤로도토스, 「역사」(천병희 옮김), (경기도 파주시: 도서출판 숲, 2009).

다. 다시 말해,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실행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는 감수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과감한 성향을 지닌 왕이다. 물론, 그리스인들(또는 헤로도토스) 입장에서는 크세르크세스가 무모하고 신중하지 못한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크세르크세스가 처음부터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마르도니오스가 크세르크세스를 부추긴 결과였다.

Herodotus VII, 5.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 헬라스 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이쿱토스를 공격할 군대를 모병하고 있었다. 그러나 궁전에는 고브뤼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가 있었는데, 그는 크세르크세스의 고종이자 다레이오스의 생질로 크세르크세스에게 페르시아인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전하, 페르시아인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아테나이인들을 응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지금 당장은 전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아이쿱토스의 쿿대를 꺾어놓으신 다음에는 아테나이로 진격하소서. 전하께서 후세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으시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전하의 나라로 침공할 엄두를 못 내도록 말이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마치 페르시아나 왕의 권위와 명성을 위해 그리스 침공을 감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의 본심은 순전히 다른 목적이었다. 그는 헬라 지역의 태수가 되고 싶어서 크세르크세스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Herodotus VII, 6.).

마르도니오스의 기민함과 설득력은 대단했다. 전쟁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살라미스 해전의 참패로 그리스 침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시점이다. 이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몸을 위해 철군을 고려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전쟁이 실패하고 철군을 앞에 둔 시점에서 그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Herodotus VIII, 100. … 한편 마르도니오스는 크세르크세스가 해전의 결과에 몹시
상심해 있는 것을 보고 아테나이에서 도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래서 헬라스를 원정하도록 자신이 왕을 설득한 만큼 처벌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번 기회에 헬라스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큰일을 위해 명예롭게 생을 마감하는 모
험을 시도하는 쪽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계산을 하며 그는 크세르크세스에
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전하, 이번 일로 상심하시거나 너무 낙담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번 전쟁의 승패는 함선들이 아니라 인마(人馬)에 달려 있습니다. 저
들은 자기들이 이미 완승을 거둔 줄 알고 어느 누구도 배에서 내려 전하에게 대항하
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점은 본토에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게 대항한 자들은 그대가를 치렀사옵니다. 하오니 좋다고 생각되시면 당장 펠로폰
네소스를 공격하게 해주소서. 하오나 기다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사옵
니다. 아무튼 낙담하지는 마소서. 헬라스인들은 지금과 전에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전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이미 철군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제게 한 가지 대안이 있사옵니
다… 전하께서 이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군대의 대부분을 이끌고 귀국
하시되, 제게 30만 정병을 뽑게 해주신다면 헬라스를 노예로 만들어 전하께 바치겠
나이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는 성급하게 마르도니오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대신 회의를 열어 다른 이들의 견해를 듣기 전까지 판단을 미루었다. 크세
르크세스는 회의 도중 해전을 반대했던 아르테미시아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
다.

Herodotus VIII, 102. 그가 그에게 조언을 청하자 그녀가 말했다. “전하, 어느 것이
상책인지 전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사옵니다. 하오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하께서
는 철군하시고, 마르도니오스에게는 그가 자원해 그렇게 하겠다면 그가 원하는 병
력과 함께 이곳에 남게 하시는 것이 상책인 것 같사옵니다. 그가 정복하고 싶어 하

는 것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전하, 그것은 전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전하의 중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설사 마르도니오스의 뜻과 정반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하와 전하 집안의 권세가 무사한 한, 그것은 그리 큰 재앙은 아닐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없앤 것은 전하의 중이므로, 승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아테나이를 불태우시겠다는 원정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셨으니 귀국하셔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조언을 한 신하 중에 데마라토스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헬라 출신이지만 원정에 오른 사람이었다.²²⁾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데마라토스가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번 전쟁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보고도 저항할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는 듯 묻는다. 그 때 데마라토스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다.

Herodotus VII. 104. 데마라토스가 대답했다. “… 그들[라케다이몬인들]²³⁾ 자유롭지만 전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법이며, 그들은 전하의 신하들이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법을 두려워하옵니다. 아무튼 그들은 법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법의 명령이란 언제나 같아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적군을 만나더라도 싸움터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열을 지키며 버티고 서서 이기든 죽든 하라는 것이옵니다…”

후에 크세르크세스는 남은 라케다이몬인들을 적은 힘을 들여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Herodotus VII. 235. 데마라토스가 대답했다. “… 전하의 함대 가운데 함선 300척

22) 그는 스파르타 왕이었지만 페르시아로 망명했다(Herodotus VI. 51 참조).

23)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타의 별칭이다. 스파르타의 건국 왕 라케다이몬은 그가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역의 국명을 왕비의 이름을 따라 스파르타로 명했다.

을 라코니케 땅으로 보내소서. 그곳 해안의 앞바다에 퀴테라라는 섬이 있는데 … 전하의 군사들이 이 섬을 기지 삼아 라케다이몬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 전하께서 제 진언을 받아들이시면, 이 지협과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은 싸우지도 않고 전하께 항복할 것이옵니다.”

그 자리에는 함선의 사령관이자 자신의 아우 아카이메네스가 있었다. 크세르크세스는 불행하게도 아카이메네스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Herodotus VII. 236. … “전하, … 적군은 우리를 어찌지 못할 것이며,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이 함께 나간다면 서로 지원할 수 있어옵니다. 하으나 전하께서 둘을 떼어놓으시면 전하께서도 해군을 돕지 못하시고 해군도 전하를 돕지 못할 것이옵니다 …”

수적 우위와 육군과 해군의 협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아카이메네스의 조언은 현명해 보였다. 하지만 라케다이몬인의 성향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라인들의 기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의 조언은 크세르크세스의 해군을 파멸로 인도하고 만다.

2) 에스더서의 묘사

에스더서의 배경은 수사(엘람어와 아카드어로 *su-sa-an*, 히브리어로 *sūsan*)의 궁전이다. 수사는 페르시아 만 북쪽으로 150마일 지점의 비옥한 평원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고대에 엘람으로 알려진 곳이었다.²⁴⁾ 수사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엘람이 앗시리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했을 때 앗수르바니팔

24) E. M. Yamauchi, *원글*, 279. 야마우치는 이 페이지(279쪽) 각주를 통해 엘람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68-627 BC)이 엘람을 쳐 들어 와 수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640 BC). 아마도 에스라 4:9-10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은 이 때 앗수르 바니팔이 유다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던 사람들일 것이다.²⁵⁾ 수사는 기원전 521년 다리우스 1세가 이 곳을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수도로 만들었을 때 엘람 시대에 누렸던 도시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²⁶⁾ 다리우스는 서쪽의 아크로폴리스에 요새화된 왕도(fortified royal city)를 건설했고 자신의 겨울 궁전으로도 활용했다.²⁷⁾ 아하수어로 왕도 반역을 일으켰던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는 수사를 그의 주된 겨울 궁전으로 삼았다.²⁸⁾

상당수 비평적인 에스더서 학자들은 아하수어로 왕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가 국정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조언에 그저 순응하는 수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학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국정을 결정하기 전에 왕실 현자들의 조언을 따르는 장면에서 기인한다. 에스더서에 첫 장면부터 왕과 신하들 사이의 논의가 펼쳐진다. 잔치의 흥에 겨워 아하수어로 왕은 왕비 와스디에게 많은 대신들 앞으로 등장할 것을 명한다. 와스디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에 당황한 왕과 신하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비를 어떻게 처우해야 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이 때 무무간은 와스디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조언을 왕에게 제안한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테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에 1:19)

25) 윗글, 292.

26) 윗글, 293.

27) A. Berlin, 윗글, 7.

28) E. M. Yamauchi, 윗글, 225-226.

흥미로운 사실은 조언을 하는 신하는 구체적으로 조언하기에 앞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이 비록 조언을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고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은 왕에게 있다는 일종의 ‘정중 어법’이다.²⁹⁾

아하수어로 왕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은 왕의 명령에 순종적이지 않는 한 민족을 전멸시키는 편이 낫겠다는 하만의 조언에 대해 아무런 숙고 없이 결정을 내린 장면에 기인한다.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인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에 3:8-9)

하만은 제국의 2인자이다. 하지만 그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앞에서는 한 명의 신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도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 전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이라는 ‘정중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만은 왕의 손실을 대비해 은으로 보전하겠다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학자들의 주장은 왕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아하수어로는 왕비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에스더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하수어로 왕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만의 교활함이다. 하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도로 계산된 수

29) 에스더서의 공손어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김성연, “정중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년 10월), 84-106. 왕 앞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정중 어법은 왕을 2인칭 ‘당신(You)’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왕(King)’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왕과 나와의 간격을 멀리하는 거리감을 둬으로써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어법이다.

사라는 사실을 일찍이 폭스(Fox)에 의해서 밝혀졌다.³⁰⁾ 하만은 사실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마무리하는 교활함을 발휘한다.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개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라고만 고한다. 아마도 하만은 모르드개가 왕을 시해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모르드개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까지 하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관계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가장 극적인 장면은 왕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배설한 장면이다. 술에 취해 흥에 겨운 왕은 어떠한 소원도 들어주겠다고 에스더에게 말한다.³²⁾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 7:3-4)

에스더도 다른 신하들처럼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다른 장면과 다른 점은 이 표현 앞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30) Michael V. Fox,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47-48.

31)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왕 자신도 모르드개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 구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이름과 신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국의 왕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다.

32)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 원하는 선물을 요청하고 왕이 이를 허락하는 것도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이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아우인 마시스테스의 딸을 사랑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왕비 아메스트리스는 이를 알고 보복하기 위해 매년 배설되는 왕의 연회를 기다렸다가 마시스테스의 아내를 선물로 요구한다(Herodotus IX 108-113). 이와 유사한 장면이 신약성서에서도 발견된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춘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머니를 차지한 헤롯을 비난하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한다(마 14:1-12 참조).

입었으면”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중한 어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청이 간절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한 편, 이 장면은 일반적인 조언의 장면과 다소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왕이 결정하기 위해 에스더의 생각을 묻는 장면이 아니고 에스더가 요청할 일이 있어서 아하수어로 왕을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에스더는 왕이 조언을 구하는 신하가 아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두드러진 것은 에스더가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지혜롭다는 점이다. 왕의 권위와 성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적절하게 행동했다.³³⁾

결론적으로 에스더서에서는 조언하는 장면과 함께 요청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조언이든 아니면 요청이든 최종적인 결정은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조언하는 신하든지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경우든지 항상 정중한 어법을 사용하여 왕이 그 조언이나 요청을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3) 두 자료에 묘사되어 있는 조언(총고) 장면의 공통점과 차이점

에스더서에서 신하들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조언하는 장면과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가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 장면을 분석해 볼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에스더서와 헤로도토스의 「역사」 모두 조언 장면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더서 저자는 아하수어로 왕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국가적인 사안이든지 결정을 앞두고 지혜로운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다. 헤로도토스도 크세르크세스 왕이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33) 탈몬(S. Talmon)은 모르드개보다 오히려 에스더가 더 현명하다고 주장한다. S. Talmon, "Wisdom in the Book of Esther", *Vetus Testamentum* 3 (1963), 437-453. 에스더가 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또 다른 주장으로, Leila Leah Bronner, "Replacing Esther: From Sex Object to Sage", *Jewish Bible Quarterly* 26/1 (1998), 9. 한 편, 여성학적인 측면에서는 에스더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제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유연희,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과 복잡한 유산",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130-131. 하지만 에스더마저도 "신뢰할 수 없고 보조적"이라고 평가하는 유연희의 연구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서'인 것처럼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하수어로도 모르드개도 아닌 여성 에스더이다.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 그리고 전쟁이 실패로 끝날 시기 철군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하들의 조언들을 듣고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거의 대부분 신하들의 조언대로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 학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 마치 사건의 결정에 무관심하거나 결정권을 발휘할 정도로 능동적이지 않는 왕이라는 것이 주요 비판의 내용이다. 반면에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무조건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는 왕이 결코 아니다. 조언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언급하고 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조언자의 수와도 관련이 있다. 에스더서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신하가 한 명 등장한다. 반면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두 명의 조언자가 서로 다른 조언을 하는 장면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 경우에 크세르크세스는 둘 중 한 명의 조언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³⁴⁾

셋째, 크세르크세스 왕은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실패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 태평성대를 이룬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특별히 크세르크세스가 수행한 전쟁과 관련해서 논의 단계부터 철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언들을 접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조언들이 있는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전쟁의 실패로 이어졌다.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크세르크세스를 비롯한 페르시아 왕들의 ‘오만’으로 보고 있다.³⁵⁾ 반면에 아하수에로 왕은 비록 중간에 하만의 조언을 따라 왕비인 에스더의 민족을 전멸시킬 수 있는 조서를 내리도록 승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다. 에스더서 저자는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의 민족을

34) 크세르크세스의 성향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아르타바노스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전하, 스스로 현명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유익한 조언을 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나 저는 똑같이 높이 평가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지질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도 주위의 나쁜 무리들이 전하를 오도하고 있습니다”(Herodotus VII. 16).

35) 최지영, “페르시아 왕의 개인적 오만과 아테네의 패권주의”, 『서양고대사연구』 30집 (2012년 3월), 33-66.

멸하려는 하만의 모략을 인지하지 못했던 다소 부주의한 왕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는 결코 오만한 왕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있다.³⁶⁾

넷째, 대부분이 신하들은 진실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지만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왕에게 해로운 조언을 하는 신하도 있다. 헤로도토스는 마르도니오스가 자신의 그리스 지역의 태수가 되고 싶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크세르크세스로 하여금 전쟁을 감행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한다. 물론 마르도니오스가 하는 말들을 들어 보면 그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물이다. 이와 비견되는 인물이 에스더서의 하만이다. 하만이 모르드개와 그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계획했던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였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방식으로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벌하기 위해 그와 그의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두 자료 모두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에스더서에 따르면 이러한 왕 앞에서는 ‘정중 어법’이 철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조언을 하는 신하들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전에 항상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다. 이 표현은 조언의 내용 전에 반드시 붙는 일종의 전형적인 표현(stereotype) 또는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이다. 조언자는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법을 사용해야 한다. 비록 자신의 말이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왕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표현 양식은 헤로도토스가 묘사하고 장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³⁷⁾ 물론 헤로도토스의 「역

36) 브릿지스(E. Bridges)는 이 장면에서 아하수메로가 ‘무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E. Bridges, *Imagining Xerxes: Ancient Perspectives on a Persian King*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2015), 146.

37) 에스더서가 정중어법이 페르시아 왕실 혹은 그리스의 문학적 관습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왕실의 어법이나 이스라엘의 문학적 관습을 반영하는 것인지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에스더서의 정중어법이 성서의 다른 장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은 후자의 견해를 좀 더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주제가 진행될 가치가 있다.

사」에 등장하는 신하들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전적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왕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들은 에스더에서처럼 철저히 정중어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에스더서와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동시대의 페르시아 궁전의 모습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에서 묘사하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묘사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특별히 크세르크세스가 신하들의 조언(충고)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서 차이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와 헤로도토스「역사」에 묘사된 장면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³⁸⁾ 물론 두 자료에서 서술하고 있는 장면들이 동일한 사건들은 아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조언을 하고 또 왕이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장면이라는 공통의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어로 왕과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크세르크세스가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기질과 성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4. 나가는 말

헤로도토스와 에스더서 이 두 저자는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공유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두 저자는 특별히 페르시아 왕실과 왕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남겨 두었다. 하지만 두 저자는 각각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전혀 다른 민족적 삶의 정황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차이와 경험한 역사의 차이는 아마도 헤로도토스가 크세르크세스의 역사를 기술하고 에스더서 저자가 아하수어로 왕의

38) 이것을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해석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T. Boman, *Das hebraische Denken im Verleich mit dem griechischen* (Gottingen, 1954). 이 책의 영어 번역은 Idem.,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London: W. W. Norton and Company, 1960). 보만은 이 책에서 헬라식 사고를 순환적(cyclically)으로 그리고 유대식 사고를 직선적(linear)으로 구별했다.

이야기를 묘사할 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헬라인들에게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의 막강함을 앞세워 무력으로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문명을 짓밟고자 하는 침략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결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웠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의 다른 제국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멸망시켰던 앗시리아나 바벨론 제국과 달리,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을 맞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성서 저자들은 페르시아 제국과 왕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민족적 배경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묘사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비록 한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조언을 받아들여 유대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위기를 모면한다. 아하수에로 왕 자신도 모르드개의 도움으로 목숨을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는 하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왕에게 유익한 조언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왕 또한 이들의 현명한 판단을 잘 받아들였다. 결정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의 조언(요청)을 받아들여 태평성대를 구가한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헤로도토스가 묘사하는 크세르크세스는 사뭇 다르다. 많은 지혜로운 조언자들도 있었지만 빈번히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다. 막강한 대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따라 전술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만다. 비록 육군이 일시적으로 아테네를 점령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의 참패로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만다. 크세르크세스는 지혜로운 신하들의 조언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따름으로써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되었고, 그 자신도 암살에 의해 목숨을 잃음으로써 이야기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5. 참고문헌

- 김성언, “정중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년 10월), 84-106.
-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기원전 458년에서 430년까지 - 에스라-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 유연희,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과 복잡한 유산”,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123-151.
- 최자영, “페르시아 왕의 개인적 오만과 아테네의 패권주의”, 『서양고대사연구』 30집 (2012년 3월), 33-66.
-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경기도 파주시: 도서출판 숲, 2009).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Berlin, A., *Esther*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 Boman T.,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London: W. W. Norton and Company, 1960).
- Bridges, E., *Imagining Xerxes: Ancient Perspectives on a Persian King*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2015).
- Bronner, Leila Leah, “Replacing Esther: From Sex Object to Sage”, *Jewish Bible Quarterly* 26/1 (1998), 3-11.
- Fitzsimons, S., “The Leadership Styles of the Persian Kings in Herodotus’ History” (Ph.D. Dis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17).
- Fox, M. V.,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Humphreys, W. L., “A Lifestyle for Diaspora: A Study of the Tales of Esther and Daniel”, *JBL* 92 (1973), 211-223.

- Immerwahr, H. R., *Form and Thought in Herodotus* (Cleveland: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66).
- Kim, K., *Incubation as a Type-Scene in 'Aqhatu, Kirita, and Hannah Stories: A Form-Critical and Narratological Study of KTU 1.14 I-1.15 III, 1.17 I-II, and 1 Samuel 1:1-2:11* (Leiden: Brill, 2011).
- Kuhrt, Amélie, *The Ancient Near East: c. 3000-330 BC*, vol. 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 Lattimore, R., "The Wise Adviser in Herodotus", *Classical Philology* 34/1 (1939), 24-35.
- Momigliano, Arnaldo, "Eastern Elements in Post-Exilic Jewish, and Greek, Historiography",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7), 25-35.
- Nicholson, E. W., "Story and History in the Old Testament", S. Balentine and J. Barton (eds.), *Language, Theology and the Bible: Essays in Honour of James Barr* (Oxford: Clarendon, 1990), 135-150.
- Niditch S. and Robert Doran, "The Success Story of the Wise Courtier: A Formal Approach", *JBL* 96/2 (1977), 179-193.
- Talmon, S., "Wisdom' in the Book of Esther", *Vetus Testamentum* 3 (1963), 422-455.
- Tuplin, C., *Achaemenid Studies* (Stuttgart: Franz Steiner, 1996).
- Van Seters, J.,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Yamauchi, Edwin M., *Persia and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검색어

헤로도토스의 역사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조언 장면

조언자(들)

Advice Scenes in Herodotus's History and the Book of Esther: Xerxes and His Counselors

Sung-On Kim

Researcher at Konkuk University

Tel-Aviv University Ph.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dvice scene related to the king Xerxes (486-465 BC). For this purpose, I mainly refer to two different data. One is the History of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and the other is the book of Esther. Scholars regard Herodotus's Xerxes and Esther's Ahasuerus as the same king.

In this study,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role of counselors appearing in both sources and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Xerxes. According to Esther, Ahasuerus follows the advices of his counsellors on almost all occasions. Herodotus records in detail what wise courtiers specifically recommended by the side of Xerxes. But according to the History of Herodotus, Xerxes is often described as rejecting rather than following the advices of his counselors. This difference makes it difficult to assess the style of the rule of Xerxes. If

www.kci.go.kr

Esther's king Ahasuerus and Herodotus's Xerxes are the same king, how do we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his propensities, which are described in the two sources?

Herodotus and the author of the book of Esther have a very different ethnic background, Greek and Jewish respectively. This ethnic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may seem to have influenced them when Herodotus described Xerxes and the author of Esther portrayed the king Ahasuerus. For the Greeks, Persians were invaders who wanted to overthrow the Greek civilization that was just blooming by the power of the great empire. The Greeks thought that they eventually overcame the Persian invasion and made their civilization flourish. On the other hand, the Persian empire came to the Jews more positively than the previous empires. Above all, by Persia the Jews wer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restore their religion.

Keywords

Herodotus's History

Xerxes

the book of Esther

Ahasuerus

advice scene

advisor(s)/counselor(s)

- 투고일: 2019년 4월 14일
- 심사일: 2019년 4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4월 29일

www.kci.go.kr